



■ 허정무 특명

짧은 패스로 공수전환 빠르게  
측면 뚫고 역습경계  
세트피스 자신있게 슈팅 하라

8강 Go ... 오늘밤 모든걸 건다

우루과이전 結草報恩 각오로 승부

〈결초보은: 은혜가 사무쳐 죽어서도 잊지 않고 갚는다〉

“우루과이의 측면을 노리되, 역습을 경계하라.” 26일 밤 11시(이하 한국시간)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전을 앞둔 한국대표팀에 떨어진 특명이다. 우루과이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를 치르며 드러낸 약점을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허정무 감독은 24일 밤 루스텐버그 올림피아 파크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팀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선수들에게 부담을 덜치고 16강 팀답게 멋진 승부를 펼치자고 당부했다”며 “우루과이는 특히 측면 공격이 강하다. 오른쪽 풀백인 막시밀리아노 페레이라(벤피카)의 오버래핑이 좋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감독은 이어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 앞서 치러진 우루과이-멕시코 경기를 재방송까지 모두 지켜봤다. 또 경기 비디오에이프까지 구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오른쪽 풀백의 수비 문제에 대해선 “솔직히 꿀을 안 먹는 팀은 없다. 이기는 경기를 하려면 모험도 필요하다”며 “우리 수비수들은 훌륭하게 경기를 했다. 기회를 얻으면 그만큼 상대에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 우루과이를 상대로 정상적인 경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우루과이 공략 포인트에 대해선 “우루과이의 중앙수비가 두텁다. 좌우 측면으로 빠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감독은 그러나 “상대 역습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무리한 공격으로 손쉬운 기회를 쥐는 안 된다”며 “중앙 미드필더를 두텁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2차전 때처럼 역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허 감독은 전날 훈련에서 승부차기 훈련에 나선 것에 대해선 “단판 승부여서 승부차기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 벌어졌을 때 이문재(수원)를 투입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팀 측면 공격의 핵심인 이정용도 “우루과이가 조별리그에서 실점이 없었지만 측면 공간이 비는 것 같다. 우리 선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우루과이의 양쪽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시도했을 때 다소 버거워하는 모습이었던”도 말했다. 한편, 허 감독은 “16강전에 오르기 전까지 열렬히 응원해준 국민을 비롯해 그동안 선수를 길러준 부모님과 선생님은 물론 대표팀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갚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의 심정으로 경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너무 좋아서 한 일본 축구팬이 25일 자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3차전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승리해 16강에 진출하게 되자 기쁨에 넘쳐 오사카(大阪) 도심의 도톤보리(道頓堀)강에 뛰어든 모습이다. 일본은 3대1로 완승했다. /연합뉴스

이웃나라 日 16강 ‘아주리군단’ 집으로

일본도 월드컵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전 대회 우승팀인 이탈리아는 슬로바키아에 일격을 당해 2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일본은 25일 오전 3시 30분(이하 한국시간) 남아공 루스텐버그의 로열 바포엔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E조 마지막 3차전에서 덴마크를 3-1로 완파해 2위(2승1패)로 16강에 올랐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지난 2002년 한-일 대회를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두 팀이 원정에서 16강에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29일 F조 1위 파라과이와 16강에서 만난다. 네덜란드도 케이프타운 그린포인트 경기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카메룬을 2-1로 꺾고 E조 1위(3승, 승점 9)에 올라 28일 F조 2위 슬로바키아와 격돌한다.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는 24일(한국시간) 요하네스버그 엘리스 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F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슬로바키아와 치열한 골 공방을 펼쳤지만 2-3으로 무릎을 꿇었다.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불안한 행보를 보였던 이탈리아는 이날 패배로 승점 2를 쌓는데 그치며 또 최하위로 떨어져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역대 월드컵에서 이전 대회 우승팀이 2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반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돼 처음 본선 무대를 밟은 슬로바키아는 2위(승점 4)에 올라 2라운드에 진출하는 경사를 맞았다. 파라과이는 폴로바네의 피터 모카바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뉴질랜드와 0-0으로 비겼지만 조 1위(승점 5)로 16강에 진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속’ 잉글랜드-독일 20년만에 대혈투

27일(한국시간) 밤 11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롬폰테인 프리스 테이트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잉글랜드와 독일의 대결은 2010 월드컵 16강에서 최고의 흥행 카드로 꼽힌다. 축구 경기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치에서도 감정의 골이 깊은 양 팀이 월드컵에서 무려 20년 만에 격돌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총을 겨눴던 양국은 이후 축구 경기장에서 전쟁 같은 승부를 펼쳤다. 성인 대표팀의 A매치 대결에서 27번 싸웠다. 잉글랜드가 12승 5무 10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2000년대 들어서도 3승 2패로 우위지만 매년 두 팀은 만날 때마다 명승부를 연출했다. 특히 월드컵에서는 그야말로 혈전이었다. 4번 대결했는데 무려 3차례나 연장전에 돌입했다. 그나마 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잉글랜드와 독일의 월드컵 경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승부는 1966년 영국에서 열린 첫 대결이었다. 당시 결승에서 격돌했는데 잉글랜드는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헤트트릭을 뽑은 제프 허스트의 활약 덕분에 독일(당시 서독)을 4-2로 꺾고 처음이자 지금까지 한번뿐인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허스트가 뽑은 잉글랜드의 3번째 골이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연장 11분 허스트가 찬 공은 크로스바의 아랫부분을 맞고 떨어진 뒤 그라운드 쪽으로 튀어나왔는데 골로 인정됐다. 이 골로 승패는 갈렸다. 독일은 홈어드밴티지 때문에 우승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갈았다. /연합뉴스



“박지성 있어 한국이 무서워”

우루과이 ‘양박’ 경계

26일(이하 한국시간)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전을 치르는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하나같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최고 선수로 꼽았다. 미드필더 에히디오 알레발로(페나롤)는 25일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국과 친선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선수 몇몇을 알고 있다”며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박지성은 모두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레발로는 “한국에는 중요한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 대표팀이 빼어난 팀으로 만드는 주인공은 역시 박지성”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표팀에서 주목할 선수가 누구냐는 말에 우루과이의 빅스타인 디에고 포를란(31·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과 루이스 수아레스(23·아약스)는 박지성 뿐만 아니라 박주영(25·AS모나코)도 거론했다. 포를란은 “주목할 선수로 ‘지성 박’을 꼽을 수 있다”며 “그는 가장 잘 알려진 선수 가운데 하나 아니냐”고 말했다. 나카야마는 박주영을 ‘10번 선수’로 호칭하면서 이름을 알지 못했고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어 한국 선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음을 드러냈다. 다만 코치진이 경계심을 불어넣고 있다는 겁새를 보였다. 그는 “한국은 볼 터치가 좋은 우수한 선수들이 많다”며 “그 때문에 16강전은 힘겨운 경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아레스도 박지성의 플레이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박주영을 포를란과 마찬가지로 ‘10번 선수’로 호칭했다.



우루과이 빅스타 디에고 포를란.

그는 박주영에 대해 “그와 같은 클럽에서 뛰는 친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에서 뛰는 중앙 미드필더 디에고 페레스(30)가 박주영의 특성을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호심배 아마골프 한창원·김희망 우승

한창원(19)과 김희망(15·독랑중)이 제8회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한창원은 25일 화순 클럽900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2언더와 70타를 쳐 최종합계 19언더와 269타를 기록했다. 박일환(속초고)과 함께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마친 한창원은 18번 홀(파5)에서 반복 실시된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박일환을 제

쳤다. 박정대(한국체대)는 이날 버디 8개와 이글 1개를 몰아쳐 10언더와 62타를 기록해 종전 코스레코드(63타)를 1타 줄였다. 최종합계 9언더와 279타로 순위는 14위다. 여자부에서는 김희망이 최종합계 14언더와 274타를 기록해 2위 고민정(건대부고)을 2타 차로 앞서 정상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위창수 감 좋네

PGA 트래블러스 1R 6언더파 선두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 이후 첫 우승 가능성을 보여줬다. 위창수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의 리버하이랜드 TPC(파70.6천844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총상금 600만달러)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

를 뽑아내며 6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매튜 고건(호주)과 함께 공동 선두로 오른 위창수는 2005년 PGA 투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이후 첫 우승을 내다보게 됐다. 위창수의 종전 자신의 최고 성적은 공동 2위 세 차례다. 위창수는 “최근 3주간 쉬면서 컨디션이 좋았다. 바람도 많지 않았고 그런 상태도 좋아 그린에 공을 잘 올려놓으면 버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드라이브샷 정확도가 57%로 저조한 편이었지만 퍼트를 25개로 막아내며 타수를 줄였다. 올해 14개 대회에서 9차례 컷을 통과한 위창수는 3월 혼다클래식 8위에 오른 것이 올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연합뉴스